

# MaytoDay

5·18 40주년 광주 특별전 14일~11월 29일 ACC·무각사 등

## 80년 5월의 기억 시대·장소 넘어 광주에

오월항쟁의 현장은 옛 국군광주 병원 본관의 작은 성당에 들어서면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른다. 가을 햇살을 받아 모습을 드러낸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를 배경삼아 얹히고 실린 실타래와 한글 등 다채로운 언어로 번역된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 만들어낸 터널 사이를 지나면 잠시 그 때로 돌아가는 듯하다. 일본 작가 시오타 치하루의 작품 '신의 언어'다.

외국의 어느 도시. 바이올린·기타 선율과 두 남녀가 부르는 '오월의 노래'에 맞춰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춤을 춘다. 흥영인 작가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발견한 이미지를 차용해 만든 안무다. 켈른의 젊은이들은 오월광주의 모습이 담긴 판화를 직접 찍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은 광주로 이어진다. 또 홍콩 민주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대만 청년작가들의 목소리도 만난다.

1980년 5월의 기억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 광주에 닿았다. 역사의 목소리를 재구성해 새로운 작품들이 만들어졌고, 전 세계에 발신됐던 민주정신의 흔적이 담긴 작품들이 다시 광주로 모여들었다. 40년의 기억 소환을 통해 새로운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다.

◇(재)광주비엔날레가 주최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 'MaytoDay' (메이투데이) 광주전이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옛 국군광주병원,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열린다.

역대 광주비엔날레 아카이브를 비롯, 창설이후 이어져온 광주정신을 추적하는 시도였던 이번 다국적 프로젝트는 민주화운동을 접점으로 연결되는 타이페이, 켈른, 서울에서 열렸던 전시를 모아 광주에서 선보이는 기획으로 내년 열릴 아르헨티나의 전시를 미리 만나는 자리다. 또 비엔날레가 꾸준히 진행해온 세계적인 작가들의 'GB커미션' 신작까지 함께 어우러진 전시로 총 14개국 86명(팀)의 작품 3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들의 어머니들과 부에노스아이레스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서울의 '민주주의의 봄'전은 권승찬·노순택·백승우·강연균·홍성담·이불·박태규의 작품 등 기존의 작품들에 김영수의 연작, 제니 홀저의 작품들이 새롭게 추가돼 관객들을 만난다.

'GB커미션'으로 참여한 호 추 니엔은 동학운동에서부터 5·18까지 이어져온 민주화운동의 궤적을 애니메이션으로 재편집한 영상작업 '49번째 궤'를 선보였다. 임민욱 작가는 2014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된 '채의진과 천 개의 지팡이'를 옛 전남도청에서 다시 선보이고 있다. 2층 강당 전체를 채운 작가의 작품은 1949년 발생한 문경 민간인 집단학살에서 생존했던 채의진 선생이 만들었던 지팡이 수백개로 이뤄진 설치작품이다.

켈른의 '광주 레슨'은 1980년대 당시 광주의 시민미술학교를 소환해 당시 제작됐던 판화를 복원·재제작해 선보이고 있다. 관람자들은 200여개의 판화 작품 중 원하는 작품을 골라 직접 찍어보고 소장할 수 있다.

국립광주병원에서는 시오타 치하루의 작품과 함께 지난 2018년 본전시관에 설치됐던 카테르 아티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베트남, 광주의 집단적 트라우마의 현실을 담은 영상 작품과 국립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의자와 의족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장소'가 달라지면서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또 2018년 선보였던 마이크 넬슨의 거울 작품도 다시 전시되고 있다.

무료 관람. 전당과 민주평화교류원 전시와 무각사·국군광주병원 전시를 나누어 관람하면 좀 더 작품에 몰입할 수 있을 듯하다. 국군병원전시는 예약제로 운영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타이페이·켈른·서울 전시 작품 기획  
'GB커미션' 신작 등 14개국 330여점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열리는 목판화전.

월 18일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목판화 운동의 궤적과 흐름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에는 김경주·김봉준·김영만·김진수·신학철·오윤·이상호·이철수·전정호·이강하·정희승·오윤·황재형 등이 참여했다.

목판화는 출판을 통한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시장에서는 오윤의 판화를 표지로 삼은 '풀빛 판화시선' 등 300여권의 도서를 만날 수 있으며 임철우의 신문 연재소설 '우리 사이에 강이 있어'의 삽화로 쓰였던 유근택의 목판화 작품 120여점이 한꺼번에 전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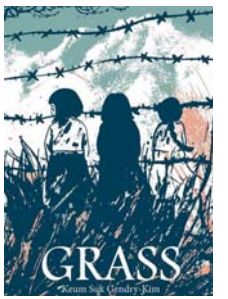
국립광주병원에서는 시오타 치하루의 작품과 함께 지난 2018년 본전시관에 설치됐던 카테르 아티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베트남, 광주의 집단적 트라우마의 현실을 담은 영상 작품과 국립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의자와 의족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장소'가 달라지면서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또 2018년 선보였던 마이크 넬슨의 거울 작품도 다시 전시되고 있다.

무료 관람. 전당과 민주평화교류원 전시와 무각사·국군광주병원 전시를 나누어 관람하면 좀 더 작품에 몰입할 수 있을 듯하다. 국군병원전시는 예약제로 운영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고흥 출신 김금숙 '풀', 美 하비상 수상

'만화계 오스카상' 최고의 국제도서 부문... 위안부 삶 다뤄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이야기를 소재로 작업해 온 고흥 출신 만화가 김금숙(50·사진) 작가의 작품 '풀'이 미국 하비상 '최고의 국제도서' 부문에 선정됐다.



미국 만화가이자 편집자인 하비 커츠먼의 공적을 기리는 하비상은 '만화계 오스카상'으로 불린다.

수상작 '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작업한 작품으로 지금까지 영어와 프랑스어, 일본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12개 언어로 출간됐다.

'풀'은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 최고의 만화, 영국 가디언지 최고의 그래픽노블, 프랑스 휴머니티 만화상 심사위원 특별상 등을 받았으며 현재 이탈리아 트레비소 코막북 페스티발에선 최고의 해외 책 후보작에 올라 있다. '풀'은 또 올해 일본 시민들의 자발적인 펀딩을 통해 일본에서 출간되기도 했다.

고흥에서 유년기를 보낸 김 작가는 세대에서 사회를 전공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고등장식미술학교에서 설치와 조각을 공부했다. 이후 만화로 전향한 그는 프랑스에서 17년간 살았고, 2010년 뮤지션인 프랑스인 남편과 귀국해 지금은 강화도에서 작업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발달장애 뮤지션 이야기를 담은 '준이 오빠' (2018), 박완서 소설 원작의 '나무' (2019),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던 조선인 최초의 불세비키 혁명가를 다룬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 (원작 정철환) 등이 있으며 최근 이산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기다림'을 펴냈다.

고흥에서 유년기를 보낸 김 작가는 세대에서 사회를 전공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고등장식미술학교에서 설치와 조각을 공부했다. 이후 만화로 전향한 그는 프랑스에서 17년간 살았고, 2010년 뮤지션인 프랑스인 남편과 귀국해 지금은 강화도에서 작업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발달장애 뮤지션 이야기를 담은 '준이 오빠' (2018), 박완서 소설 원작의 '나무' (2019),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던 조선인 최초의 불세비키 혁명가를 다룬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 (원작 정철환) 등이 있으며 최근 이산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기다림'을 펴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전통버선과 어우러져 꽃피운 '사모곡'

한국화가 류현자 초대전, 30일까지 금봉미술관

한국화가 류현자 작가의 작품 속에 흐르는 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다. 늘 회상했던 어머니의 삶에서 모티브를 얻은 '버선'은 그녀 작업의 주 소재가 됐고, '사모곡' 시리즈를 통해 진화해왔다.

류현자 작가 초대전이 오는 30일까지 금봉미술관에서 열린다. '사모곡-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초대전은 10여년간 이어져온 '사모곡' 시리즈를 갈무리하는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 버선의 조형미와 함께 어머니를 포함한 세상 모든 여성의 삶을 담은 연꽃과 목련 등 다채로운 꽃이 어우러진 작품 등 40여점을 선보인다. 또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한 자 한 자 서경(寫經)한 작품들을 대작과 병풍 형식으로 함께 선보인다.

오방색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작업을 진행해온 그녀의 작품에서 최근 돋보이는 건 부드러운 색감으로 함께 어우러진 다완, 달 항아리, 토기 등이다. 인간사의 희로애락과 명상을 상징하는 색색의 물결 모양 띠와 다완, 연꽃과 버선이 어우러진 화폭은 색다른 감정을 전달한다.

전남대 예술대학과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한 류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통과 형상화, www.현자미술가회, 사)에뵈고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 버선의 조형미와 함께 어머니를 포함한 세상 모든 여성의 삶을 담은 연꽃과 목련 등 다채로운 꽃이 어우러진 작품 등 40여점을 선보인다. 또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한 자 한 자 서경(寫經)한 작품들을 대작과 병풍 형식으로 함께 선보인다.

오방색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작업을 진행해온 그녀의 작품에서 최근 돋보이는 건 부드러운 색감으로 함께 어우러진 다완, 달 항아리, 토기 등이다. 인간사의 희로애락과 명상을 상징하는 색색의 물결 모양 띠와 다완, 연꽃과 버선이 어우러진 화폭은 색다른 감정을 전달한다.

전남대 예술대학과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한 류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통과 형상화, www.현자미술가회, 사)에뵈고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